

2012. 9. 20.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9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

- 일시: 2012년 9월 21일(금) 09:00~18:30
-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홀
- 주최: KDI ·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 발표 요약 -

□ KDI(원장: 현오석)는 9월 21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소장: 강성진)와 공동으로 '국제통화 체제,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제하의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를 개최, 2013년 러시아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G20 체제 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국내외 학자들과 공유하고,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G20 정상회의의 의제 선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하고자 함.

- G20 비회원국들의 연구 및 토론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부문 또는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의제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국제회의는 차기 G20 개최국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개최예정국과의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회의는 ‘국제통화 체제 개혁’,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동성 증가’ 및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등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됨.

- 1세션에서는 ‘국제통화체제 개혁’을 주제로 국제통화제도에서의 국제금융, 현재의 환율제도, 달러의 미래, 위안화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진행
-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동성 증가’ 제하의 2세션에서는 두 부문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G20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원자재 가격상승과 국제무역, 상품가격과 자유무역화의 관계를 고찰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3세션에서는 녹색금융,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의미와 방향, 지속가능발전, 녹색 에너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국제회의에는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김성민 카이스트대학교 교수,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최경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찰스 위프로즈 스위스 제네바경제대학원 교수,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교수, 킴 앤더슨 호주 아들레이드대학교 교수, 파트리크 메스랭 프랑스 시앙스포 교수, 미하일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전략연구재단센터 소장, 세르게이 드로비시프스키 가이다경

제정책연구소 거시경제와 금융센터 소장, 에덜슨 드 올리베이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학교 교수 등 관련분야 최고의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

- ◆ 문의: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02-958-4206)
강성진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장(02-3290-2225)

- ◆ 첨부 1. 프로그램
- ◆ 첨부 2. 발표 요약

❖ 첨부 1.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09:00~09:30	등록
09:30~10:00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환영사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축사 코르트노프 안드레이 러시아 국제위원회 국장
세션1. 국제통화체제 개혁	
10:30~12:30	의장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발표 1. 국제통화체제 개혁: 개요 ▪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 찰스 위프로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발표 2.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G20 ▪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발표 3. 유럽연합 재정위기 이후의 국제통화체제 ▪ 찰스 위프로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발표 4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위안화의 국제화 ▪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 교수 발표 5. 강건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G20 의제: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 김성민 KAIST 교수 패널토론 ▪ 마크 우잔 프랑스 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 사무국장 ▪ 이일홍 중국주재 국제통화기금 수석대표 ▪ 마리아 바티스타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연구원 ▪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12:30~13:45	오찬사 이상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세션2.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동성 증가

14:00~16:00	<p>의장 코르트노프 안드레이 러시아 국제위원회 국장</p> <p>발표 1. 식량 가격변동: 무역조치에서의 역할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앤더슨 호주 아들레이드대학교 교수 <p>발표 2. G20, 에너지 보조금, 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p>발표 3.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G20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욱 서울시립대 교수 ▪ 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 <p>발표 4. 유럽연합의 원자재 정책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리크 메스랭 프랑스 시앙스포 교수 <p>패널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훈 강원대학교 교수 ▪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무 이노우에 일본 세이케이대학 교수 ▪ 크리스 살라티엘로 아주대학교 교수
-------------	--

세션3.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16:30~18:30	<p>의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p> <p>발표 1. 높은 유가에 사로잡혀 있는 러시아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하일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전략연구재단센터 센터장 ▪ 세르게이 드로비시프스키 가이다르 경제정책연구소 거시경제와 금융센터 소장 <p>발표 2.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남미의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딜슨 드 올리베이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학교 교수 <p>발표 3. 글로벌 녹색성장금융을 위한 G20 국가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p>발표 4 G20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성과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p>패널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주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유카 다케다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18:30	폐회식
19:00	<p>만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 첨부 2. 발표 요약

세션 1. 국제통화체제 개혁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eform and the G20”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G20

조운제 서강대학교 교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고정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음.
 - 국제통화체제 하에서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 화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게 과도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
 -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화폐가치와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요국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함.
 - 국제자본은 자본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으로 왜곡되어 흐르고 있음.
- 이에 따라 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개혁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 수요측면의 개혁은 외환보유고에 대한 신흥국의 과도한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

- 공급측면의 개혁은 복합적 통화시스템으로의 전환, 다양한 국제통화나 특별인출권(SDR)을 포함한 대체적 외화준비자산의 폭넓은 사용, 새로운 세계통화 창출을 통한 국제통화 공급의 다양화가 핵심

- 현 경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는 G20을 통한 주요국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요함. 또한 국제적 대출기관이자 세계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감시자로서 IMF 역할의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G20과 IMF가 효율적인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G20 국가 간 제도적 혁신과 함께 IMF의 개혁이 필요함.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Euro Area Sovereign Debt Crisis”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의 국제통화체제

찰스 위프로즈 스위스 제네바국제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유럽지역의 위기는 경제정책, 특히 국제통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유럽지역의 위기는 악화되고 있으며 그 위기 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유로존의 실패와 와해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 유럽의 통화동맹은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두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 결함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한 순간 동맹 규칙이 잘못 적용될 수 있음.
 - 첫 번째 결함은 ‘연방 차원에서의 규율 설정 실패’로, 이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음.
 - 두 번째 결함인 ‘잘못된 은행 규제와 감독’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정책 실패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유로존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로화가 존속되기 위해서 두 가지 결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음.

- 유로존 위기로 높은 수준의 화폐 통합을 시도, 희망한 지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화폐 구성의 변화를 늦추게 되는 계기가 됨.
 - 유로존의 경험을 통해 인위적인 환율은 통화 동맹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중앙은행 없이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으며, 재정정책과 은행 감독에 대한 각 국의 자주권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관리 기구와 집행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복잡하고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다른 통화 동맹이 탄생했다면 IMF는 통화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을 것이며, IMF 내에서 최소 득표수와 의결권의 재분배가 가능해졌을 것이며, 달러화의 패권 또한 위협받았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많은 개혁가들은 IMF의 관리체계에 대한 형식적인 개선보다는 IMF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Reforming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A Chinese Perspective”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위안화의 국제화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교수

- 현재 국제통화체제의 주요한 문제는 달러화 중심의 준비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불평등하다는 것임.
 - 현재 지속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는 상황이며, 주요 통화 간 환율 변동성 또한 매우 높음.
 - 자금 흐름 또한 변동성이 심하고, 이는 신흥국 및 개도국의 호황·불황 순환을 촉발하여 위기 시에 유동성 지원과 국제금융 관리 부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제시된 국제통화체제 개혁 방안은 그 어떤 것도 쉽게 실현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
 - 세계 단일통화 방식 및 특별인출권(SDR) 방식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실현 될 수 있음.
 - 새로운 달러 기준화 방식은 미국의 능숙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단기, 장기적 차원에서도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임.
 - 다원화된 준비통화시스템은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정책 의제에 관한 법안은 세 가지 수준을 고려해 제정되어야 함.

- 국제적 수준에서, 주요 경제국에 대한 IMF의 체계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G20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생산적인 매커니즘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매년 2000억 달러수준의 특별인출권(SDR)을 발행, 할당해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수준에서, 미국 및 기타 적자 국가들은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복귀, 재정 통합 및 구조 개혁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적자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반면, 중국을 포함한 흑자 국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좀 더 유연한 환율 정책 기조로의 전환 등 다양한 구조적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외부 불균형을 방지해야 할 필요 있음.
 - 지역적 수준에서, EU 국가들은 공동 재정정책이나 효율적인 위기 구조 매커니즘의 제정을 포함하는 거시 경제 정책 매커니즘을 강화해, 지역 통화 통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 있음.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점차 AMRO의 역할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CMIM)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 자국 금융 및 재정 통합 프로세스를 발전시켜야 함.
- 지난 3년 동안 위안화의 국제화는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으며,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시아 경제의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통화 통합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임.
- 위안화가 준비통화가 된다면, 통화 경쟁에 새로운 요소를 유도할 수 있어, 국제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 그러나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발달한 국내 금융 시장과 태환할 수 있는 자본 계정은 위안화가 주요 국제 준비통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2014년 특별인출권(SDR)의 바스켓 통화화도 위안화가 다극의 준비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통화, 좁은 절상 폭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진행될 것이며,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자본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는 주로 역외 시장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함.

“The G20 Agenda for More Resilient Global Financial System: Stocktaking and Remaining Challenges”

강건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G20의 의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김성민 KAIST 교수

- 논의가 진행 중인 G20 의제를 보다 강건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포괄적임. 의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중 규제체제 확립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임.
 - 규제체제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G20 의제에 대한 준비과정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규제개혁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 1980년대 초까지 금융규제 시기를 겪었으며 이후 규제완화의 기간이 관찰됨.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현재 다시 규제기간으로 접어 들게 됨. 이러한 과정의 반복 여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달려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제차익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차익이 국가 및 산업 간 엄격한 규제 효율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협력,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의 확립 및 새도우 बैं킹시스템의 감시를 필요로 함.
 - 유럽의 경제 위기 심화에 따라 현 통화규제 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했지만, 현 규제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강한 규제에 의한 민간 부분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정책의 개혁을 강조해야하며, 특히 금융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체제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

- 모든 경제 주체들에 의해 파이낸셜 레버리지를 부추기는 제도적 왜곡을 찾아, 그것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

세션 2. 에너지·원자재 가격상승과 변동성 증가

“Food Price Volatility: What Role for Trade Measures?”

식량 가격변동: 무역조치에서의 역할은?

김 앤더슨 호주 아들레이드대학교 교수

- 개발도상국에서 식량과 에너지 원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유럽,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연료 정책은 많은 국가 정부들로 하여금 자국의 장단기 식량안전보장과 관련 정책을 반추하게 하는 계기가 됨.
- G20 국가들도 최근 국제 식량 가격의 불안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식료품 가격을 더 자주 급등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음.
- 과거 각 국 정부는 국제 식품 가격의 장기 추세와 단기적 변동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더 효율적인 자국 내 조치 대신 무역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각 국 정부는 자국 시장이 국제 식량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역 제한 하에서의 추세 수준에 맞춰 단기적인 조절을 시도하고, 이는 오히려 무역 가격의 변동을 심화시킴.
- 과거 25년 동안 선진국의 농업 보호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 기피 현상 완화에 진전이 있었으나, 경제 후생 개선, 소득 불균형과 빈곤 해소 및 국제 식료품 시장의 경기 진작을 위해 농업 부문에 남아있는 무역 왜곡을 제거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국제 가격 변동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성향은 약해지지 않고 있으며, 식량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국제 식량 가격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보호주의를 견지하고 있음. 또한 생물연료와 관련된 보조와 권한이 새로운 형태의 농업 보호로써 국제 식량 시장의 불경기 심화에 원인으로 작용함.

□ 본 연구는 각 국 정부의 일방적 행동과 다자간 무역 합의가 어떻게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낮추고, 동시에 국제 식량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봄.

“G20, Energy Subsidies, Commodity Prices and Climate Change”

G20, 에너지 보조금, 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 G20이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
 - G20 내에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러 권고 사항이 제시되고 있지만, G20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안을 찾아내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석유수출기구(OPEC)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G20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포함)를 서로 연관시켜 논의할 필요 있으며, 특히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춰 보다 면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 있음.
- 원자재 가격은 비효율적인 공급 성장 때문에 상승하고 있으며, 식량 안정 강화와 농업생산성 증가는 G20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주요 의제임.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Commodity Price Volatility on G20 Economies”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G20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경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

- 2003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 국제상품가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제상품가격의 변동성이 또한 상당히 높아짐.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격 변동성은 거시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가 변동성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상품가격의 변동성은 미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왜곡된 분배를 야기해, 결국 투자 감소와 자본이용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1년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상품가격 변동성을 주제로, 상품가격의 변동성이 G20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음.
 -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G20 국가 중 자료수집이 완전한 17개 국가의 월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과 세계 에너지 및 비에너지 상품가격 지수이며 표본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함.
 - 실증분석 결과, 17개국 중 13~14개 국가에서 상품가격의 변동성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상품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단이 조속히 간구되어야 함을 시사

“EU commodities policies and volatility of world prices”

유럽연합의 원자재 정책과 세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파트릭 메스랭 프랑스 시앙스포 교수

- 최근 유럽연합의 원자재 정책의 범위는 농축산물 시장에서부터 에너지 시장, 금속류 광물, 원목, 천연고무 등의 다양한 원료 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짐.
 - 이는 2005~2006년부터 시작된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주요 원료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에서 비롯
-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 유럽연합의 원자재 정책이 세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일조했는지 여부를 살펴봄.
 -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파생상품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현재까지 투기적 행위가 불안정성의 원인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는 찾기 힘들며, 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적 영향을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
 - 만약 유럽연합의 정책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원자재 정책은 수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 불안정을 주도하는 농산물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의 농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원자재 가격 변동의 또 다른 진앙지인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 봄과 동시에 가장 최근에 유럽연합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희토류와 같은 원료를 다룸.

세션 3.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Russia’s economy as the hostage of high oil price”

높은 유가에 사로잡혀 있는 러시아 경제

미하일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전략연구재단센터 소장

세르게이 드로비시프스키 러시아 가이다르경제정책연구소 거시경제와 금융센터 소장

- 2000년대 들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러시아는 석유수출기구(OPEC) 비회원국들 가운데 두 번째로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음.
- 루블화의 저평가는 러시아의 석유 생산 비용을 페르시아만 국가 수준인 배럴당 3-5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고, 2000년대의 지속적인 유가 상승은 석유 생산 증가에 확실한 기반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러시아는 세계 석유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됨.
- 현재 석유 산업이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명확하지만, 러시아에서 석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여타 석유 수출국에 비하면 작은 수준임. 그러나 석유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기업 이윤과 고정 투자가 러시아 경제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
- 석유와 석유 제품은 러시아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산업은 러시아의 예산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함. 석유 생산과 수출에 대한 특별세(광물 추출세) 및 석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세는 연방정부 세수의 50%를, 일반정부 수입의 30%를 차지함. 정유회사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석유산업의 공헌도는 국가예산 수입의 40~45%, 연방예산 수입의 55-60%까지 증가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유가 상승이 2000년~2008년 러시아의 GDP 성장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2011년 러시아의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밝혀짐.

○ 석유산업 부문 자체의 성장률과 석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유가 상승은 순 수출 승수와 수출 수익을 증가, 국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2004년에 러시아 정부는 유가 변동이 자국 경제와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산업 부문에서 초과 세수를 모아 원자재 안정화 기금(commodity stabilization fund)을 마련

○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은 GDP의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가운데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실질환율의 안정적인 절상을 가져옴.

□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국내 경제에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대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함. 특히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들과 달리 러시아는 석유를 가격 변동에 맞춰 공급하지 못함.

○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석유 생산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지만, 극동지역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대륙 간 송유관 건설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자들은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며 석유 수출에 있어서 지리적인 기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 변동이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유가 안정을 고려할 때,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계 유가의 잠정적 안정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

- 원자재 가격 안정이 미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때, 미국의 물가상승, 온건한 화폐 정책과 예산 편성 방침 및 주요 준비 통화 간의 미래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유가 상승을 야기함.

□ 지속적인 명목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 다양한 원자재 가격 하에서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에 관한 IMF의 최근 연구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국내 경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 몇몇 거시경제 지표의 긍정적 변화는 원자재 가격이 높을 때가 아닌, 세계 원자재 시장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남.
- 러시아와 과거 소련 연방국들의 석유 생산은 향후 10~15년 내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는 유전의 고갈과 GDP 대비 석유 산업의 비중 감소에서 찾을 수 있음.
-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는 국가 예산 수입의 수준과 내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유발하며, 이는 유가의 점진적 상승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

“The Global Oil Market: An Outlook from South America”

글로벌 오일 시장: 남미의 전망

에딜슨 드 올리베이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학교 교수

- 1970년대 석유 소비의 중심이 개발도상국으로 움직이는 동안 국제석유회사들(IOCs)은 석유수출국가들이 보유한 석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을 도입함.
 - 유가는 상승했으며, 유가 변동성 또한 커지기 시작함. 석유 산업의 중요성이 적어지면서 몇 년 동안 석유시장이 안정화 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 10년간 혼란이 지속되었음.
- 중동은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석유공급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역 내 정치적 불안은 이 지역에 대한 석유 공급 의존성을 감소시킴.
 - 이러한 상황이 석유 가격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 경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 탄소 경제로 빠른 전환 또한 가격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소임.
- 석유에 대한 의존기간,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 안정된 석유 공급자원의 발견, 수입 에너지의 가격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협약의 채택은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고민
- 본 연구를 통해 석유는 앞으로 한동안은 세계 에너지원의 중심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남미가 세계 석유시장의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제시하고자 함.
 - 남미는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에 많은 경험을 지님.

- 남미는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적 분쟁이 없으며 전통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옴.
- 하지만 남미의 주요한 약점은 부족한 금융 자원과 기술 혁신에 대한 제한적 수용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OECD와의 협력하에 개선될 수 있음.

“G20 and Global Green Growth Financing” 글로벌 녹색성장 금융을 위한 G20 국가의 역할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 글로벌 녹색성장이란, 환경보호/자원절약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자는 녹색성장이 지구상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지구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 글로벌 녹색성장을 더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과 장소에 더 많은 자원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고, 녹색성장에 반하는 일과 장소에는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
- 현재 G20 국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녹색성장금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 거의 모든 국가에서 녹색성장금융에 필요한 법, 제도, 기구 등 소프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
- 본 연구에서는 현재 G20 국가의 실상을 일별하여 녹색성장금융이 매우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녹색성장금융이 부진하게 된 원인을 이론과 실제 경험에 비추어서 살펴본 후, G20 국가 내에서 녹색성장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자원 및 환경서비스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주체들 스스로가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반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유도
 - 또한 녹색성장금융에 필요한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 민간금융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녹색성장금융에 참여하도록 유도

- 필요한 경우 조세, 정부구매, 보조금지급, 금융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녹색성장금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초기에는 정책 금융기관과 공공 연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어느 정도 기초 여건이 조성되면 민관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민간부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연구의 더 중요한 목적은 G20 국가뿐만 아니라 빈곤국가에서도 녹색성장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음.
- 빈곤국가는 환경오염과 자원 남·오용을 줄이면서 경제 또한 발전시켜야 함. 하지만 빈곤 국가들은 녹색성장을 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술 및 자금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20 국가가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함.
 - G20 국가들이 빈곤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그들은 빈곤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해 줄 자금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빈곤국에 대한 G20 국가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며, 끝으로 세계의 빈민들이 부유한 나라로 모여드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
 - 환경재화와 서비스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빈곤국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G20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그 비용을 분담해야함.
 - 빈곤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재앙은 G20 국가에도 큰 위협 요인이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옳음.

- 글로벌 공공재인 환경을 보호하고 글로벌 공유재산이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일은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부자 나라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므로 G20 국가가 이 일을 위해 더 크게 공헌해야 함.

□ 글로벌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G20 국가의 역할을 제시함.

- G20 국가가 솔선수범해 녹색성장전략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함.
- G20 국가는 G20 비회원 국가 특히 빈곤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그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 있음. 한 방안으로 기존의 ODA를 Green Growth ODA로 전환하고 그 금액을 늘려,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방식을 수혜국의 녹색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녹색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임.
- 녹색성장 프로젝트는 벤처로서의 특징이 강하므로, global/regional venture capitalism을 활성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녹색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녹색성장금융거래소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국부펀드와 연기금펀드 등이 글로벌 녹색성장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제도, 기구, 정책 지원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국제경제 질서에 맞게 구축할 필요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빈곤국가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일임. 특히 빈곤국가 사회 지도층의 생각, 능력,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인류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원칙은 빈곤국이라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빈곤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보건, 위생, 의료, 전염병 방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가옥 내 공기오염, 홍수방지 등 기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함양시키는 일이 필요함.
- 기술 이전 측면에서 빈곤국에 적합한 '알맞은 수준'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최첨단 기술을 전수하는 것보다 유용할 수 있음.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G20: Performance and Prospects”

G20에서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성과와 전망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 현재 경제체제는 화석연료에 매우 의존적이며, 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인 ‘녹색성장’에 눈을 돌리게 함.
- 녹색성장 뿐 아니라 유사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 비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함.
 -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 효율 혹은 녹색 경제 등의 유사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사회발전 그리고 친환경적 활동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지만, 사회발전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나 환경문제에 비하여 덜 고려되고 있는 실정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정책은 환경친화적인 경제발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절대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함.
 - 이는 수많은 이해집단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